

# 공산화됐다면 종교·지식·기업인 모두 속청

## 살롬나비 6.25전쟁 70주년 논평... 한미동맹 강조

중국 종속(從屬), 조선말 패망 왕조의 친청(親淸) 시대주의로 복귀

살롬을 꾸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환 박사, 이하 살롬나비)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6.25 전쟁은 스탈린과 모택동의 사주를 받아 북한 김일성이 일으킨 남침 전쟁이며 한미동맹은 자유대 한민국 변영의 초석이 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6.25전쟁은 스탈린과 모택동의 사주(使敎)를 받아 북한 김일성이 일으킨 북한의 남침전쟁이었다.

한미동맹은 자유대한민국의 오늘의 변영의 초석 이었고 미래 선진국이 되게 하는 길이다.

올해는 6.25전쟁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다. 6.25전쟁 당시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이 소련제 탱크로 밀고 내려온 기습적 남침으로 전후 전쟁 준비가 안 된 국군은 북한 공산군에 의하여 밀려서 3일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까지 후퇴를 거듭하다 유엔군의 도움으로 반격을 하여 겨우 부산 항구를 면하고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집어서 서울을 탈환하고 북한으로 진격하여 북한 압록강까지 점령하여 통일을 이룩했다. 이때 중국군의 개입으로 유엔군은 작전상 후퇴하여 후퇴와 전진을 거듭하다 휴전에 들어가게 되었고 오늘날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가 되었다.

6.25전쟁 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된 지구상 빈국(貧國)에서 미국의 원조로 다시 일어나 피땀을 흘려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신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가 되었다. 오늘날 세계의 10대 경제대국, 디지털 기술로는 세계 1위에 올라갈 정도로 국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는 경제 문화발전이 걸맞지 않아 21대 국회를 열었으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적폐청산과 죄과 환형의 역사 수정으로 국민 분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살롬나비는 다시한번 6.25 전쟁의 의미와 되새기면서 역사의 진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6.25전쟁은 김일성, 박헌영이 일으킨 북한의 남침전쟁이었다.**

김일성은 해방이 되자 일찍이 소련의 도움으로 북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세우고 무장투쟁 무장분배의 도치행령을 실시하고 소련제 무기로 무장하고 군대를 양성하였다. 북한으로 넘어간 남로당 지도자 박헌영은 “남한에는 남로당이 간재하고 있어서, 소위 민족 해방전쟁이 일어날 경우 이들 (20만명)이 합세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김일성의 남침을 설득하였다. 당시 미국은 이승만의 북진 통일론으로 인해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여 한국군에게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소수의 군사교관 단만 남경단체 남한에서 철수했다. 당시 남한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북한 김일성은 마오쩌둥(毛澤東) 중국군의 중국 본토 징양 등의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 팽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호응하여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약속받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서 남한을 침략한 것이다. 6.25전쟁은 바로 북한 김일성과 박헌영 주도의 침략전쟁이었다.

**2.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은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사전 승인 지원을 허락했다.**

소련의 스탈린(Joseph Stalin)은 처음에는 남침을 반대했다가 1년 후 공산주의 팽창의 일환으로 김일성의 남침을 승인하고 무기까지 지원하였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진 소련 문서에 의해 드러났다. 소련 문서에 의하면 김일성과 박헌영은 남침전쟁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1949년 봄, 1950년 봄 두 차례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1949년 3월 7일)시 김일성의 남침전쟁 허락 요청에 대하여 스탈린은 “미국 철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 상조”라고 남침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에 3월 17일에 조·소(朝·蘇)비밀 군사원조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 의하여 소련 특별군사교관단은 1949년 5월 북한에 도착하여 인민군 훈련을 담당했고, 소련의 최신 무기 제공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조·소비밀군사원조 협정을 체결한 다음날 3월 18일 모스크바에서 조·중(朝·中)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했다. 중국 공산당은 무기와 병력을 북한에 제공하고 타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중국이 개입하겠다는 협정이 김일성과 마오쩌둥 사이에 맺어졌다. 미국은 1950년 1월 대만과 한반도를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소위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을 발표하였다. 1949년 6월 30일 미군을 태운 마지막 배가 한국에서 철수하자 김일성과 박헌영은 그 이듬해 1950년 봄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에게 남침전쟁 승인을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스탈린의 허락을 받아 내었다(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국이 작성한 문서, 1950년 3월 30일~4월 25일 김일성 소련방문건). 소련은 남한에서 군대를 철수시킨 미국의 태도를 미국의 한국군 개입 반대로 이해했고, 여기에 자신감을 얻어 김일성에게 남침을 허락하였던 것이다.

**3. 유엔 16개국 연합군과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은 자유 한국을 구한 결정적이었다.**

한국은 6.25전쟁 당시에는 유엔군의 2차세계대전 승리로 일체의 강점에서 해방된 나라로서 세계에서 잘 알려지지 아니한 은둔의 나라였다. 그런데 미국 트루먼(Harry Truman) 대통령은 아시아에서의 자유민주주의의 세력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빨리 개입하였다. 트루먼의 회고록에 의하면 중국이 공산정권에 넘어갔는데 한국까지 공산정권으로 넘어갈 경우 아시아에서의 자유민주주의의 위상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미국이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위상을 위하여 개입한 것이다. 만일 미국이 유엔 16개국과 함께 참전하여 피(미국은 54,200 전사자를 내었다)를 흘리지 아니했다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공산주의가 지배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1950년 8월 13일~30일 10여 차례 고지를 뺏고 뺏기는 전투인 세계전쟁에서 보기도 못한 1사단은 승리를 이끌었다. 그는 유엔군으로 참전한 맥아더 장군의 지원을 받아 밀려 오는 인민군에 용단 폭격을 가하여 인민군을 무력화 시키고 목숨을 걸고 낙동강을 사수하여 대구를 지켰다. 그는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으로 6.25전쟁의 전설이 되었다. 이미 낙동강 지역까지 진격해 온 공산군에게 반격할 전략적 적의 허리를 잘라 수송물자와 군대 이동을 막는 것이었다. 이것이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이고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사령관으로서 이 작전을 위함을 무릎쓰고 김해행에 성공한 것이다. 맥아더 장군은 6.25전쟁을 유엔군의 승리로 이끌고 북한으로 진격까지 하게된 전쟁 영웅이다.

**4. 중국의 6.25 참전으로 한국은 통일의 기회를 잃었다.**

1950년 9월 15일 맥아더(Douglas MacArthur) 사

령관의 지휘 아래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여 9월 28일 수도 서울을 수복하고 유엔군이 38선 이북으로 진격하여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 유엔군은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다. 그런데 이 때 우리의 통일의 기회는 중공(공산주의 중국)군의 개입으로 좌절되었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정진호 전투가 벌어지게되자 전쟁이 확대되어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려하여 유엔군은 후퇴하게 되었다. 유엔군이 작전상 철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유를 찾아 나선 북한 피난민들이 흥남 부두에 10만명 이상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룬 것은 유엔군이 아니라 북한 동포의 환영을 받았기 때문일 수 있다. 흥남 철수가 시작되었고 12월 22일 마지막 남은 빅토리호는 정원이 60명이고 승무원이 48명이 타고 있었다. 화물을 다 내려놓아도 2500명 이상은 탈 수 없었다. 하지만 신앙과 생명을 중시한 유엔군은 배의 무기 등 물자를 버리고 피난민을 1만4천명을 태워서 무사히 거처에 도착하였다. 이를 “그리스도마스 기적”이라고 부른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통일의 꿈은 좌절된 것이다. 이 꿈을 좌절시킨 당사자가 바로 중국의 마오쩌둥이었다. 이 중국은 1989년까지는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가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으로 30년 후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대국(G2)의 지위에 올랐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발전이 결맞는 정치체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공산당 1당 독재와 일대(一帶)일로(一路)One belt, One road) 정책으로 주변 아시아 국가를 정치, 경제적 속국으로 만드는 제국주의 정책을 펴 왔었다. 그리하여 중국은 아시아 나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중국이 오늘날 한국을 자신의 편에 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한국은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는 시대적·역사적 중국관을 표명하면서 중국 신(新)중속주의에 갈취했다

**5. 한미동맹은 휴전 이후 70년 간 한국 재건과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휴전 이후 대한민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아시아와 세계에서 경제건설, K팝, K요리 등에서 세계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는 전쟁으로 폐허된 한국의 기술자, 학자들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선진기술을 익히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시장 경제를 배우게 한 미국의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지원이 있었다. 미국의 뒷받침 없이 오늘날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 이는 진미 시대주의의 발상지 이니, 대한민국의 수천년 역사를 통하여 해양세력인 미국과의 동맹으로 인하여 우리는 1980년대에서 2010년대에 이르는 30년간 중국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진 역사적 사슬에 근거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수천년 역사를 통하여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중국을 추월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에 대한 영토 야심이 있는 나라로 조심해야 하니,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로 영토야심이 없기 때문에 편만한 나라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종북 세력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일부인사들은 한미동맹에서 탈피하고 중국 종속(從屬)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중국 시대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노선은 조선말 패망한 왕조가 가졌던 친청(親淸) 시대주의의 복귀이다.

**6. 6.25전쟁의 행렬과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이 함께 나아가야 할 우리의 동맹국이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날 한국 국민들

### 동성애를 반대하는 김리교단 성명서 전문

##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동성애자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9년 8월 31일 인천부평광장에서는 제2회 인천동성애축제가 열렸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결혼과 행복한 가정의 가치를 소수자의 인권이란 명분 아래 훼손하고 에이즈와 각종 성병을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이다. 이런 동성애를 마치 좋은 것인양 포장하여 열린 제2회 인천퀴어축제에서는 심지어 교회와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도 자행되었다. 이런 행사에 경기연회 소속의 이동환 목사는 참석하여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일을 지행하였다. 축복한다는 명분으로 죄와 죄악된 행동을 축복한 것이다. 이는 김리교회의 목회자로서 행해서는 절대 안되는 일이었기에 경기연회 재편위원회는 김리교 교회와 장정에 의하여 이동환 목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한다.

**1. 김리교 교회와 장정을 위반하고 많은 교인들에게 실망을 준 이동환 목사는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성경의 레위기 18:22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라고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라고 하였고, 고전 6: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율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욕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에서는 동성애는 하나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김리교 교회와 장정은 일반재판법 제3조 8항에 “미약할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분명하게 동성애에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것을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리교 목사들은 성경과 교회와 장정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김리교회에서 인수를 받는다. 그렇다면 김리교 목사이동환 목사도 당연히 성경과 김리교 교회와 장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리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반대하는 동성애와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하고 축복이란 명목으로 신성모독적 일을 지행한 것은 스스로의 다짐을 어기는 일이며, 많은 성도들에게 큰 슬픔과 실망을 주는 일인 것이다. 때문에 이동환 목사는 즉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김리교회 공동체에 용서를 구하기를 촉구한다.

**2. 김리교 교회와 장정에 의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세력은 즉시 방해기만하는 작태를 멈추기를 경고한다.**

이동환 목사 재판 건으로 김리회목사자모임새물결(새물결) 일부 목사들과 일부 추종세력들이 언론 플레이를 비롯한 방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이동환 목사의 일탈에 동조한다는 것으로 그들 역시 교리와 장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인바 동일하게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그들은 김리교 교회와 장정의 일반재판법 제3조 8항에 “미약할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조항이 2015년 별다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가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마약, 도박, 동성애 분리가 공론화를 거쳐야 될 사항인가를 스스로 지문해 보길 바란다. 이런 그들의 주장은 동성애란 죄악의 씨앗을 대 한민국과 교회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뿌리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동환 목사 동조세력은 방해 기만하는 작태를 멈추기를 경고한다.

**3. 경기연회 재편위원회는 성경과 김리교 교회와 장정에 의해서 올바른 재판을 진행하기를 촉구한다.**

경기연회 자적심사위원회는 이동환 목사를 불러 사건의 개요를 듣고, 회개하고 자중하기를 권면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목사바른 일을 했기에 경기연회 재편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다. 성급하게 목회자를 판단하고 법적으로만 처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건의 정황과 과정을 파악하고 난 후 성경과 신앙과 교회와 장정에 의거하여 선의를 가지고 권면하였으나 이동환 목사가 거절했기 때문에 재판이 회부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기연회 자적심사위원회와 재편위원회가 하나님과 김리교회에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했기에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연회 재편위원회가 이동환 목사에 대해 하나님과 김리교회에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재판을 진행하기를 촉구한다.

**4. 이동환 목사의 재판건을 편향된 방향으로 보도하는 언론은 공정하게 보도하라.**

언론은 이동환 목사의 재판을 그와 지지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리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공공연하게 보도함으로써 나쁜 저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정해야 할 언론의 사명을 포기하는 일이다. 앞으로 언론은 이 사건을 공정하고 분명하게 보도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결의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 2020년 6월 25일
- 김리교 동성애대책연대
- 김리교 바르게세우기연대
- 충청연회 동성애대책위원회
- 충청연회 남산교회
-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목회자모임

은 만일 미국이 한국전에 유엔군으로 참전하지 아니했다면 한국은 공산화되었을 것이며 오늘날 우리들이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누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지위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 천년 동안 군신관계로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하였고 미국처럼 우리나라를 위하여 친구로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다. 미국은 6.25전쟁시 5만4천2백명이 목숨을 버렸으나 중국은 항상 우리나라를 신하로 취급하였다. 중국은 우리의 이웃일뿐이지 진정한 친구는 못되나 미국은 할렘이다. 한반도 통일의 열매들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는 이웃 나라로 그냥 친하게 지내면 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야야 정치인들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70여년 간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되돌

아 보면서 만일 대한민국의 오늘날 안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면 1975년 베트남처럼 공산화 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세력들과 종교인들, 사회적인 지식인들, 기업인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숙청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북한은 김여정을 내세워 지난 3년동안의 남북관계를 냉전으로 되돌리고자 대한민국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겁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면서 남한을 대적(敵)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럴 때 북한에 대한 지나친 종북주의적 태도에서 탈피하여 외교적인 상호주의로 나아가 당당하게 북한에 대응하고 한미동맹을 든든히 하여 국가의 안보를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주시기를 바란다.

- 2020년 6월 23일
- 살롬을 꾸꾸는 나비행동

### 목양時事 // 이효성 원장 // 근대화진흥원장, 한국교회건강연구원장

## 포스트코로나의 성찰(省察); ‘사람’을 생각하다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갔다. 그 거리에 절망과 슬픔을 남기고 갔다. 또한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 역시 분신과 차별, 비대면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무너진 삶의 자리를 추스르기도 전 ‘사회적거리두기’는 심리적 거리를 만들고 ‘불신’을 키울 때,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의사들은 멀어진 사회적 거리, 심리적 안전망 붕괴로 이어지는 9월 재발성을 말하고 상인들은 정신적·사회적 타격에 이어 경제적 충격까지 더해지는 후폭풍을 우려한다. 지금은 각 영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 대응하며 버티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경제·사회적 취약점이 드러나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이나 방어막이 붕

괴되면서 여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바이러스의 도전에 대한 응전 과정에서 얻은 포스트 코로나(Post-COVID)의 해안도 필요하지만 프리 코로나(pre-corona)의 회복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을 다시 보게 되고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절망의 위기를 맞은 사람들에게 대한 회복이다. 낙오되는 쪽을 도와 함께 가게 하는 ‘사회안전망’이다.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삶. 발전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다. 그래서인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의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10명 중 4명(42.5%) 이상이 우울

증등도 이상의 우울위험군은 17.5%로, 2년 전(3.8%)보다 4배 이상 높아졌고, 우울과 불안이 호소하는 국민이 늘면서 심리상담 전화도 늘었다고 밝혔다.

어찌보면 사람이 아프다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누구나 생략치 못한 갑작스런 질병이나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찬송가 가사처럼 ‘슬픈 마음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정신건강에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에 경제적 충격이 더해지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그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심리적 문제점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외경의 정상 범주를 벗어났다고 한다. 특히

인들은 좌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누구에게나 다칠 수 있는 질병이나 후 전염병, 무너진 경제가 아니다. 사회라는 공동체를 버티는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을 때까지는 사실이다. 과연 그럴 공동체가 꼭 필요한가? 공동체에 소속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과 불신과 불확실성으로 반복되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질병이 찾아온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인만큼 변화한 상황에 맞는 적극적 케어(케어)는 필수적이다. 입에서부터 이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절망, ‘나를 도와줄 사람, 함께해줄 이가 없다’라는 고독과 무력감이 사회를 무너뜨린다. 이런 고독은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아니다. 아프고 힘

들어도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몰라서 아니다. 절망의 지리는 상처를 아물지 않고 더욱 벌어지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돌봄’이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로 사회적 관계가 느슨해지면서 확실히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줄고 있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우울할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다’는 답변은 68%에 그쳤다. 지난해 조사에서 86%로 보인 것에 비하면 코로나19가 무려 18%포인트를 끌어먹은 셈이다. 도움을 청할 기관이 있다는 답변은 38%에 불과했다.

이런 우울과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은 사회적 관계지수(아쉬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데, 우울과 불안은 높아지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위기에 빠진 사람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면 위험도는 급격히 높아질 것이다.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취약계층이 고립되지 않도록 종교계가 위험대상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가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위기상황에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감당해야 할 때다. 하지만 교회도 회복이 만만치 않다. 슈퍼선데이(superSunday)를 선포했지만, 바운스백(bounce back)이 쉽지 않다. 교회가 그동안 진행해온 온라인 콘텐츠들 비대면 격려에 적극 활용하고 화상 모임으로도 제목을 나누는 등 심리적 거리를 좁힌다면 게이트키퍼(gate keeping)에 작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미국의 사회학자 리스먼(David Riesman)이 1950년에 출간한 ‘고독한 군중(The Lonely Crowd)’의 책에서 다룬 것처럼 외로운 현대인들은 ‘군중 속의 고독’에 산다. 남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지만 정작 내 마음 터놓을 곳은 없는, 진정한 내 편과 지리는 없는 것 같은 느낌. 말 그대로 군중 속의 고독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이래 저래 외롭고 고독한 존재이다. 그걸 부정하려고 아무리 노력해 봤자, 피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한다고 해서 외롭거나 고독해 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외로움 속의 외로움, 같이 있음의 외로움...그러니, 결국 고독의 극복은 이미 철저한 고독일 뿐이다.